

CJ ENM STUDIOS STORY CONTEST 기획안 - 영화 부문

1. 작품정보

작 품 명	제로 데이 (ZERO DAY)
응모분야	영화
장 르	생존 스릴러
배 경	현재 서울
로그라인 또는 짧은 줄거리 (300자 이하)	<p>“위장 임무로 범죄자로 내몰린 비인가 요원의 목숨 건 정규직 생존기(生存記)”</p> <p>국정원 위장회사 ‘미래 정보’의 비인가 요원 지민은 뼈와 영혼을 갈아 넣은 임무 수행으로 정규 요원을 앞두고 있다. 부푼 가슴으로 출근한 지민 앞에 ‘미래 정보’가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사라졌다.</p> <p>이후, 어렵게 찾아낸 동료가 눈앞에서 살해되고, 이 악물고 모아 왔던 돈마저 계좌에서 전부 빠져나갔다. 게다가 자신을 갈아 수행해 왔던 수 많은 위장 임무들이 치명적인 범죄로까지 물리자, 지민은 회사 규칙을 어기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국정원에 비상 연락을 시도한다.</p> <p>하지만 권력자들의 암투로 위장회사 ‘미래 정보’가 희생양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다국적 금융 정부 ‘씨드9’의 충격적인 진실과 직면하는데...</p> <p>인생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민은 범죄자의 오명을 벗고, 그토록 원하던 국정원 정규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p>

2. 캐릭터소개

이지민(32)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정보’ 소속 비인가 여자 요원.

해킹과 생존술에 능하며 말보다는 행동, 과정보다는 결과로 정규직 요원을 노린다.

그 흔한 스타벅스 한 번 간 적 없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못 참는다.

불확실한 세상보다 자신을 더 믿는 빠속까지 행동주의자로 종종 자백 경향이 있다.

7년간 뼈를 갈아 임무를 수행해 온 성과가 하루아침에 범죄가 되자,

자신과 정규직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건다.

최준서(29)

위장회사 ‘미래정보’에 파견 나온 새내기 국정원 정규직 요원.

지민과 같은 모의 해킹 팀원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실력, 인성, 외모까지 3박자를 다 갖춘 훈남.

강안(41)

지민과 미래정보를 쫓는 추격자.

한 번 노린 타겟은 결코 놓치지 않을 냉혹함과 집요함을 가졌다.

조직의 명령보다 자신의 임무에 더 충실하다.

장대환(45)

3대가 국정원 출신인 금수저 출신 상황실장.

우아한 워라벨 국정원 고위직이 인생 목표다.

고진옥(45)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과 강직함으로 원장도 눈치를 보는 국정원 감찰국장.

외부 압력과 갖은 유혹에도 적절한 거리두기에 능숙하다.

3차장(57)

원장 자리를 꿈꾸는 국정원 출신 3인자.

불같은 성격에 샤우팅을 쏟아내지만 늘 실리를 쫓는다.

맹승재(33)

스팸 메일과 각종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야매 프로그램 시장의 실력자.

지민의 이전 동료로 권위적인 모든 것에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솟구친다.

씨드9(SEED9)

조세 피난처로 연결된 베일에 가려진 다국적 금융 정부.

3. 결말이 포함된 전체 줄거리

국정원 위장회사 ‘미래 정보’의 비인가 요원 지민은
결과로 과정을 증명해 왔으며
살과 영혼을 갈아 넣은 임무 수행으로 정규 요원을 앞두고 있다.

생애 첫 휴가를 가려다 문제가 생겨 회사로 돌아온 지민.
그런데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왔던 ‘미래정보’가 사라졌다.
동시에 그녀 폰에 뜨는 미래 정보 비상 코드 네임. ‘제로 데이!!’

이후, 겨우 수소문한 동료가 지민 눈앞에서 살해되고,
이 악물고 모은 돈들이 계좌에서 전부 빠져나갔으며,
그동안 몸을 갈아 수행한 위장 임무들이 치명적인 범죄로 몰려 쫓기게 된다.

위기에 처한 지민은 회사 규칙을 어기고 국정원에 비상 연락을 시도한다.
절대 금기를 어기고 본사에 직접 접촉한 지민에게 날아든 지시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접선 장소에서 ‘구원자’를 기다릴 것!!”

접선 장소에서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지민.
하지만 그 구원자는 놀랍게도 ‘미래 정보’에서 같이 근무했던 훈남 준서다.
지민의 안전을 먼저 체크하는 준서는 미래 정보에 일어난 사태를 이야기해준다.
최근 국정원 내부 암투로 위장회사 ‘미래 정보’가 희생양이 되었다며
‘미래 정보’의 생존자는 지민과 자신뿐이라고 한다.
충격과 분노에 어쩔 줄 몰하는 지민.

준서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혼란에 가득한 지민에게 다가온 또 다른 구원자!!
공항에서 자신의 휴가를 망치고 사라졌던 냉혹한 인상의 강인이다!!
도망가던 지민을 간단하게 제압한 뒤 ‘씨드9’의 행방을 묻는 강인.
‘씨드...9?? 그게 뭔데??!! ’

그때 달려온 자동차가 강인을 밀쳐버리고, 차 문을 열어 어서 타라고 소리치는 준서.
준서와 강인 둘 사이에서 갈등하던 지민은 둘 대신 어두운 뒷골목으로 내달리는데...

계좌에 있던 지민의 모든 돈이 사라졌고,
눈앞에서 동료가 죽었으며, 치명적인 범죄자까지 된 지민.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던 ‘구원자’ 또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 인생 최고의 위기에 몰린 지민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토록 원했던 정규직을 되찾기 위해 국정원의 가장 깊은 곳
‘존안 금고’로 잠입한다.

그곳에서 베일에 가려진 **다국적 금융 정부 ‘씨드9’**의 존재를 알게 되고
충격적인 진실과 대면하는데...

극도의 절망감에 빠진 지민을 집요하게 노리는 ‘씨드9’와 국정원 추격팀!!

국정원 위장회사 비인가 요원이던 지민은
악(惡)을 재생산하는 ‘씨드9’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자의 오명을 벗어 그토록 원하던 **국정원 정규 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